
2017년 4/4분기 경주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보고서

2017년 4/4분기 경주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 보고서

I. 조사 개요

○ **목 적** : 경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파악하여 회원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대 상** : 경주지역 제조업체 58개사

○ **기 간** : 2017년 8월 25일 ~ 2017년 9월 4일

○ 조사 내용

1. 기업경기실사지수(BSI), 2017년도 4/4분기 전망치 및 2017년도 3/4분기 실적치 (체감경기,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 조달여건)
2. 2017년 3/4분기와 4/4분기의 정책적 환경 비교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작성방법

1. 분기별로 조사대상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분기와 대비하여 호전, 악화 또는 불변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함.
2.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

$$\text{기업경기실사지수 (BSI)} = \frac{\text{호전표시 업체 수} - \text{악화표시 업체 수}}{\text{총 유효응답 업체수}} \times 100 + 100$$

BSI = Business Survey Index (0 ≤ BSI ≤ 200)

2017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 경주상의 관내 제조업체 조사 결과, 경주 지역 전반적 경기는 국내·외 경제 상황으로 인해 BSI 기준치(100)의 절반가량인 '54' 포인트에 그쳐...
- '67' (17년 3분기) → '54' (17년 4분기) 로 전 분기 대비 '13' 포인트 하락...

I | 경주지역 경기전망

- 경주지역 제조업체 58개사를 대상으로 **4/4분기 기업경기전망(BSI)**을 조사한 결과, 지역기업들이 느끼는 전망치는 「54」로 전분기(3/4분기) 「67」과 비교하여 「1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전망치 중 최저치로 조사되었다.
- 사드 보복이 지속됨에 따라 경주지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기계 업계는 생산량 감소 및 수급 지연으로 인한 약 40%의 매출 감소와 현대자동차 중국 현지 공장 운영 중지에 따른 연쇄 피해 등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현대·기아차 노조 파업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다가오는 추석 휴무의 장기화로 인한 경영 악화 등 전반적으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철강업계 역시 수입 물량 및 발주량 감소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중국 내에서 철강 생산설비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최근 2년간 1억t 가량의 설비를 폐기하는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국내 철강 가격 상승의 여지가 생겼으나, 경주지역 철강 제조업체는 높아지는 철강재 단가로 인해 영업 불이익 발생, 생산량 감소, 생산 지연 등의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기아차 노조위원장 및 집행부 선거로 인해 10월 말 까지 파업은 중단될 예정이나 선거 이후 파업이 재시작되고 장기화된다면 내수적 위기·위험 요인으로 다시 추가되어 경기가 주춤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적 대비 전망치가 오른 것으로 보아 경주지역 제조업체들이 경영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와 함께 경기 부양 정책의 조속한 실행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 경주지역 제조업 분기별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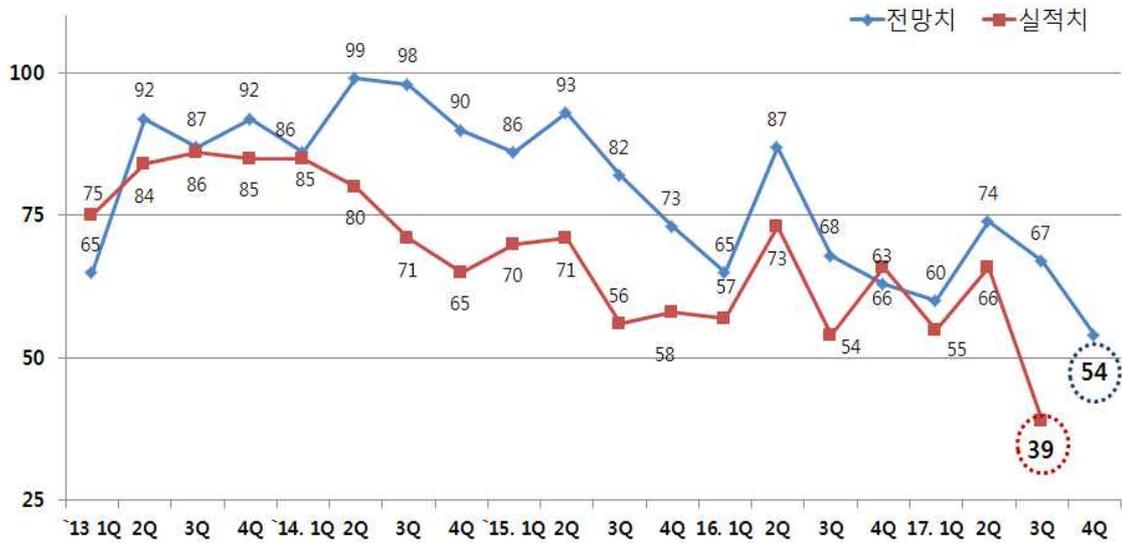


표 1 경주지역 제조업 분기별 전체 BSI

구분 \ BSI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전망치	86	99	98	90	86	93	82	73	65	87	68	63	60	74	67	54
실적치	85	80	71	65	70	71	56	58	57	73	54	66	55	66	39	

그림 2 '17년 3/4분기 실적 대비 '17년 4/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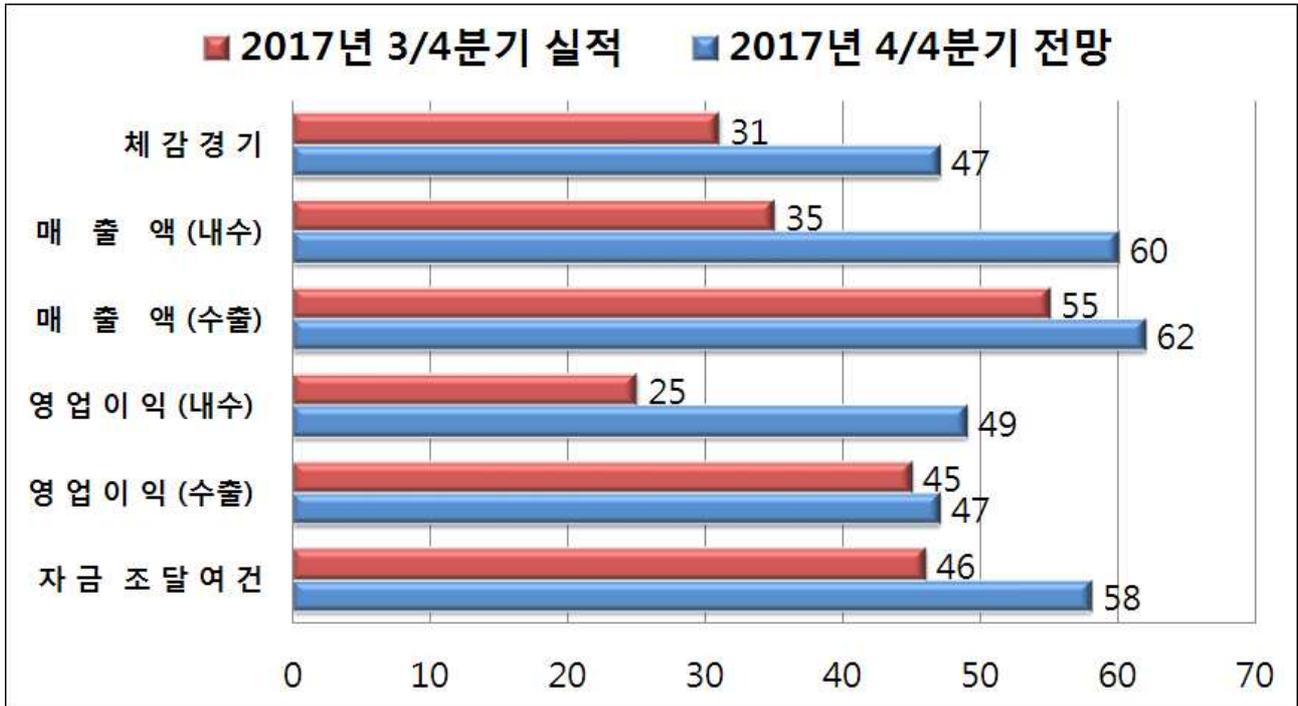


표 3 경주지역 제조업 분기별 항목에 따른 BSI

기간	2016								2017							
	1/4		2/4		3/4		4/4		1/4		2/4		3/4		4/4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체감경기	61	33	79	52	50	40	52	76	60	42	68	50	62	31	47	
매출액	내수	63	42	81	61	53	46	64	82	62	44	78	50	63	35	60
		수출	63	42	81	61	53	46	64	82	62	44	78	50	63	55
영업이익	내수		54	40	73	50	53	44	60							25
		수출	54	40	73	50	53	44	60							45
자금조달여건									70	94	54	66	62	57	46	58
설비투자	81	92	106	108	94	100	87	102	84	80	84	103	87			

※ 매출액, 영업이익의 경우 내수, 수출로 세분화, 설비투자의 경우 2017년 3분기 실적 조사항목에서 제외

1 “귀사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어디입니까?”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중국	16	34.0%
미국	10	21.3%
동남아	3	6.4%
EU	3	6.4%
중남미	2	4.3%
기타	13	27.6%
합 계	47	100%

◆ 중국(34.0%), 기타(27.6%), 미국(21.3%), 동남아와 EU(각 6.4%), 중남미(4.3%) 순으로 나타났다.

2 “중국 사드보복 체감하고 계십니까?”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그렇다	15	65.2%
아니다	8	34.8%
합 계	23	100%

◆ ‘그렇다’라는 응답이 65.2%, ‘아니다’라는 응답이 34.8%로 나타났다.

3 “사드보복 초기(3월)에 비해 체감도는 어떻습니까?”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그대로다	13	56.5%
더 악화됐다	8	34.8%
나아졌다	2	8.7%
합 계	23	100%

◆ ‘그대로다’라는 응답이 56.5%, ‘더 악화됐다’라는 응답이 34.8%, ‘나아졌다’라는 응답이 8.7%로 나타났다.

4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미국으로의 수출환경이 나아졌습니까?”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그대로다	16	76.2%
더 나아졌다	3	14.3%
악화됐다	2	9.5%
합 계	21	100%

◆ ‘그대로다’라는 응답이 72.2%, ‘더 나아졌다’라는 응답이 14.3%, ‘악화됐다’라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

5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모르겠다	36	62.1%
불참하겠다	17	29.3%
참여하겠다	5	8.6%
합 계	58	100%

◆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62.1%, ‘불참하겠다’라는 응답이 29.3%, ‘참여하겠다’라는 응답이 8.6%로 나타났다. <끝>